

이번 선거는 조용하게 치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걱정합니다. 돈 걱정을 합니다.
수십억원씩 마구 뿌려지는 돈이 우리 살림을
또 얼마나 어렵게 만들지 모두들 걱정입니다.
본래 선거란 나라 일꾼을 뽑는 경사스런 일입니다.
그래서 좀 흥겹고 시끌시끌한 분위기에서
치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선거때마다
돈으로 표를 사고 돈으로 동원된
박수부대가 유세장의 분위기를 망치는 이런 일은
생각만 해도 짜증스럽습니다.
이제, 당선되어 정치 잘하겠다고
떠들기 전에 이런 선거풍토부터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

13대 선거에서 돈안쓰고도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 *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회사원, 노동자, 주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 어려운 살림에도 밀없이 따리준 당원들, 남몰래 저를 도와주는 공무원,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합니다.
- *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홍보물 6종 중 4종만을 만들겠습니다. 단, 근거없는 모략이나 흑색선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 자원봉사자와 당원을 막론하고 1인당 법으로 규정된 5,000원 만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선이 되어도 무효이고 빌는 사람은 처벌됩니다.

• 노무현 후보 선거사무소 •

부산시 동구 수정2동 1-61 (통일다방 5층)
전화: 464-8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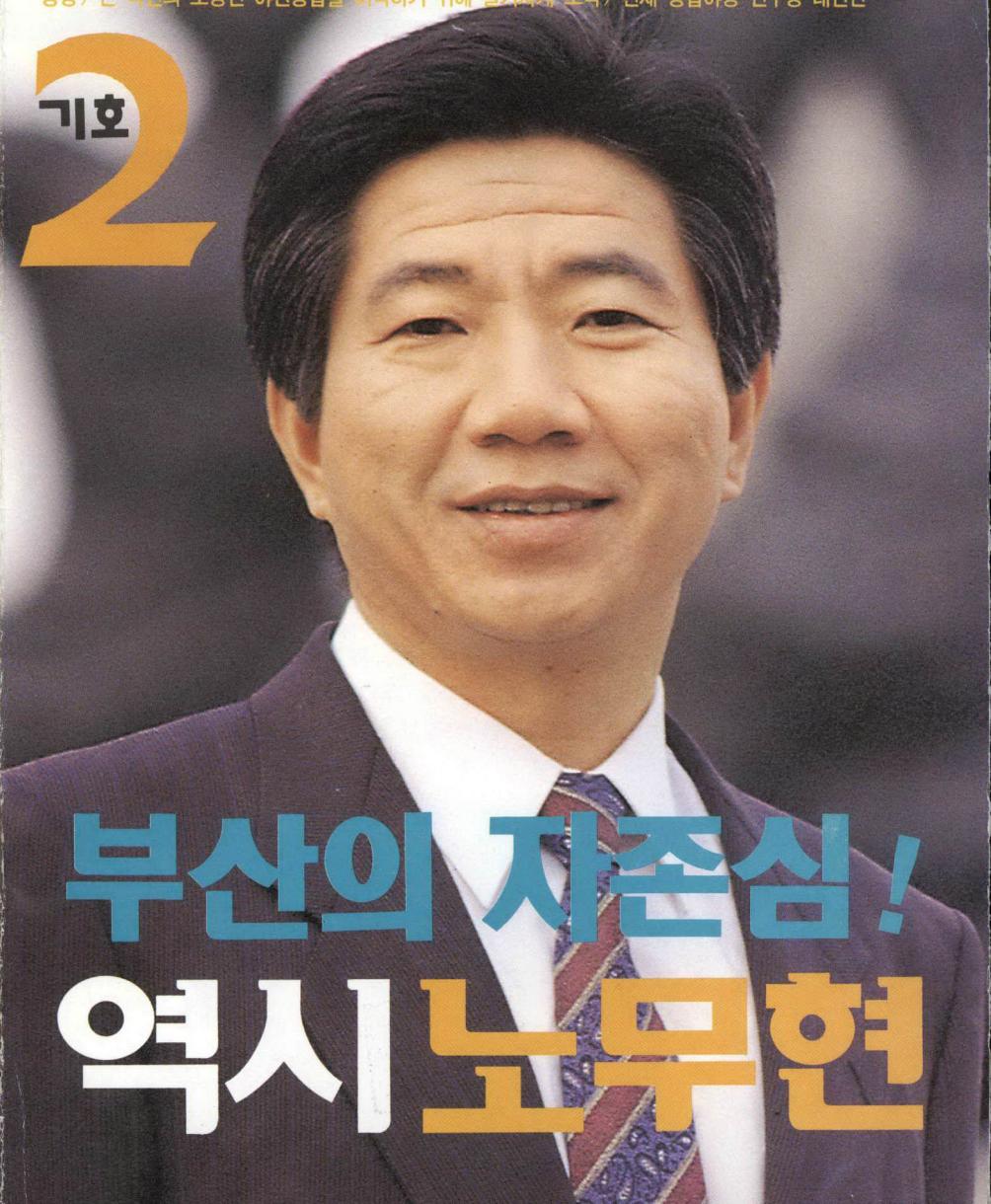
32177

기호 2 노무현

이 인쇄물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것임
● 제작자: 후보자 노무현
● 인쇄소: 늘사랑 인쇄소
주소: 부산 중구 동광동 5가 48-6
전화: 469-8509

■ 경력 / 66년 부산상고 졸 / 75년 사법고시 합격 이후 판사, 변호사 / 81년 이후 재야 인권 변호사로 활동 / 부산시민과 함께 87년 6월항쟁을 주도 / 88년 4. 26 충선 당선. 깨끗한 선거운동과 동구의 자부심이 어우러진 멋진 한판승! / 88년 10월 5공특위 위원, 청문회를 통해 냉철한 논리와 서민에 대한 혁신적 애정이 인정돼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부각 / 이후 양심과 곤은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3당 합당 거부, 민주당 창당 / 온 국민의 소망인 야권통합을 이루하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 / 현재 통합야당 민주당 대변인

기호
2



부산의 자존심!
역시 노무현



지금, 온 국민이 부산 동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두들 쎄게 불었다고 떠들썩 합니다. TV를 봐도, 신문·잡지를 읽어도
모두들 부산동구가 전국 최대 싸움판이라고 흥미있어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 쥐었다고 기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사람과
기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
청문회스타로 등장하여 전국민의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과
증인석에 나와 땀을 뺏祓 훌리며 '미안합니다'를 연발하던 사람과의 싸움
소신과 용기로 지조를 지켜온 사람과 한물간 5공인물과의 싸움입니다.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5공망령이 되살아나느냐가 이곳 동구에서 판가름 납니다.

지금이 바로 동구의 자부심이 소중한 때입니다.

이제, 전국민이 기대하는 사람 – 부산의 자존

국회활동 단연 돋보여

뽑아 주었더니
역시
국회의원감 –



13대 국회의원 성적표
청문회 스타, 의정활동도 우수
1등 : 이해찬, 2등 : 노무현
3등 : 이철용, 4등 : 이 철
<신동아 92. 1>

30년만의 국정감사
국회의 꽃, 국정감사… 장차관들 바짝 긴장
국정감사 돋보인 10인
노무현 · 박찬종 · 이 철…
<일요신문 89. 10>

공부하는 국회의원
299명 국회의원중 3~5명이 도서관 이용
박찬종 · 이철 · 이해찬 · 노무현 의원 등만이
자주들러 입법자료와 국정감사 준비에 열중
<매일경제 89. 8. 9>

국민의 사랑! 역시, 노무현

「부산동구」 –
자랑스러운 네글자를
전국에 알려준
동구의 대표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인기도를 조사한다면 누가 1위라고 보십니까?
(91. 11 토요신문)

- 88. 12 신동아 선정 10대 특급인물
- 88. 12 MBC 대학생이 뽑은 정치인 1위
- 91. 11 중앙일보 여론조사 가장 호감이 가는 정치인 1위
- 90. 9 중앙일보 여론조사 가장 호감이 가는 정치인 1위
- 91. 12 KBS 30年, 80년대의 인물로 선정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신과 깨끗함, 능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기

각종 여성지 여론조사 정치인 부문 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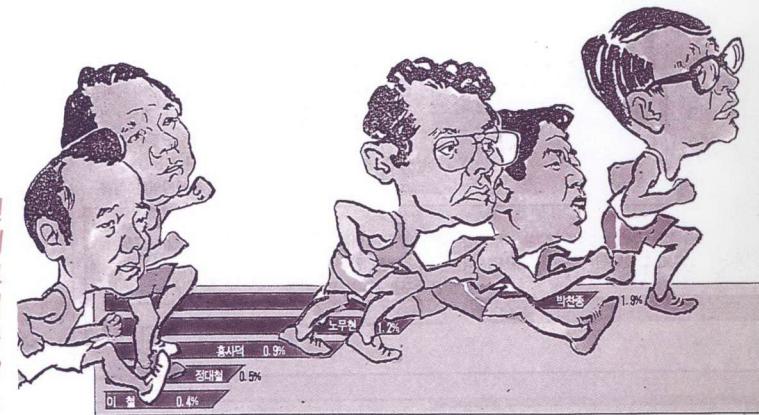
심. 역시 노무현! 동구에서 키워 주십시오!



3金시대가 끝난후

새시대를 이끌어갈 정치인은 누구입니까?

93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로
김대중씨 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91. 4 시사저널)



91. 6 경향신문 여론조사 “차세대 지도자” 4위
91. 3 조선일보 발행 주간조선 여론조사
“3金을 제외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3위”
91. 1 MBC 여론조사
“차세대 지도자” 4위

동구의 자부심이 소중한 때입니다.
힘을 주십시오!